

##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4년 교회표어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롬12:15)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이달의 캠페인 - 일어나서 함께가자
- ◎ **성찬주일:** 다음 주는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 ◎ **교육:** 세례자 예비 교육이 계속됩니다. 문답: 10월 5일 12시 세례식 10월 5일 주일예배
- ◎ **협조:** 본당용 노트북 컴퓨터가 노후되어 교환이 필요합니다. 기증하실 성도는 연락 바랍니다.
- ◎ **열심:** 화요 기도회와 성경기초교리, 금요 성경 공부가 진행중입니다. 선한 능력과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 ◎ **노회:** 뉴질랜드 제 20회기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일시: 2014년 9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에덴 장로교회 목사 안수식: 오후 2시
- ◎ **감사:** 연합 부흥회에 여러모양으로 잘 섬겨주신 성도들 감사드립니다.
-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 교우소식

- ◎ **등록:** Tommi Mock, 오근영 성도 P2 D/ 88 Anzac Ave Auckland 368- 7884, 021-166-0239, 1 남여 선교회
- ◎ **득손:** 고성일 장로(김봉희 권사) 가정 셋째 손주 얻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포토 빌라 간호 학교



밀알장애우 봉사 Auckland City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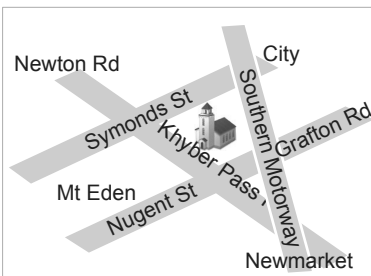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 오시는 길



###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태한 (Tae Han Lee)

**부목사 (Assistant Pastor)**  
심창진 (Chang Jin Sim)  
이성철 (Sung Chul Lee)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교회창립 1999년 7월 14일

2014년 9월 21일 주일 16권 38호

### 신어야 할 신발과 벗어야 할 신발

저는 발이 작아서 신발이 참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언니와 오빠가 광주와 목포에서 공부를 하다가 방학이 되어 고향에 올 때면 늘 저에게 신발을 선물로 사왔습니다. 그 시절엔 고무신이 최고였는데 저는 이 신발을 발이 큰 동생이 신어서 늘어날까봐 걱정되어 동생이 찾지 못하도록 숨기기도 하고, 잠 잘 때면 품에 안고 신었다 벗었다를 반복하다가 잠이 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모깃불을 피어놓고 옥수수과 감자를 삶고 텃밭에서 올영감(토마토) 한소반을 따다가 온가족이 마루에 앉아 먹으며 아버지의 아코디온과 하모니카 연주에 오빠가 사온 신발을 신고 재롱을 부리며 춤추던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묻혀 살다보니 어릴적 신발에 대한 추억은 내 삶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들은 아련해졌습니다.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앞만 보며 살았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발버둥을 쳤고 예수님을 몰라도 잘 살 수 있다는 하늘을 찌르기도 남을 자부심 하나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날, 저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굴복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인하고 싶었고, 벗어나고 싶었고, 세상에 대한 미련 또한 너무 컸습니다. 조그만 더 기다려 달라고 주님께 눈물로 애원 했지만 저는 이미 주님의 손에 짝 잡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로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점점 감사가 나왔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감사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저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덴 동산의 생명수와 실과를 먹고 마시며 이른비와 늦은비에 감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어릴적 신발에 대한 추억이 되살아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발은 어릴적 기뻐하던 그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벗어야 할 신발이었습니다(출3:5).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말씀이었습니다(수5:15).

우리도 벗어야 할 옛 사람과 옛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위선의 신발, 교만의 신발, 인본주의의 신발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벗기 싫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벗어버리기에 많은 시간과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모세는 이 신발을 벗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내가 벗어야 할 신발이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신어야 할 신발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엡6:15) 라는 말씀입니다. 벗어야 할 신발인지 신어야 할 신발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피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어야 할 신발은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믿습니다. - 김순자 권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Calvary Kore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담임목사: 이태한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 주  
예배로 부름  
개 회 송  
참회의 기도  
\* 찬 송  
\* 성 시 교 독  
\* 신 앙 고 백  
찬 송  
대 표 기 도  
성 경 봉 독  
찬양대 찬양  
설 교  
찬 송  
헌 금 기 도  
교 회 소 식  
\* 응 답 송  
\* 축 도

반주자  
시편81:1-3  
찬양대  
다함께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85. 요한 1서 4장  
사도신경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최광암 집사  
사도행전 26:1-23  
나무십자가 찬양대  
**뒷밭질 하던 인생에서/이태한목사**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인도자  
인도자  
여기에 모인 우리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찬 양  
기 도  
성 경  
설 교  
합 심 기 도  
광 고  
찬 송  
주 기 도

수요 찬양단  
이기중 권사  
하박국1: 8-11  
**하나님의 응답 2/이태한목사**  
인도자  
인도자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다같이

**청년 모임** 오후 3시 인도:심창진목사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이예찬 형제

☉ 9월 교회악기

2여선교회 수련회: 9월 6일(토)  
새가족 환영회: 9월 13일(토)  
연합부흥회: 9월 18일(목)  
성찬주일: 9월 28일(주일)

☉ 9월 예배봉사자

예 배 안 내: 김철재/김현주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경덕현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한상순/김윤숙/장태욱/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김선화 집사  
다음 주일: 현석호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김정훈 형제  
10월 1일 수요: 손조훈 집사  
10월 1일 애찬: 이규임 권사  
10월 5일 주일: 최득수 집사  
10월 5일 청년부: 최정인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 1.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교회,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 2. 신앙중심, 교회중심, 말씀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 3.생업의 어려움, 비자문제, 건강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9월 새벽기도회 본문**

26일: 에스라 8:1-20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할 때 가라

**선교와 증보기도**

갈보리 각 공동체는 공동체별로 맺어진 선교사들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 사역소식과 기도제목들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 적극적인 증보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강나하르 선교사의 소식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다. 체첸의 여름은 38,9도 정도지만 한국보다 덜 습해서 견딜만했는데 한국의 여름은 습해서 더 덥습니다. 올 여름 건강하고 무사히 보내시길 기도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최근까지 한국 본부 근처의 선교관에 지내면서 본부 동원팀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말씀 나눔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로 사무실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각자가 맡은 영역의 일을 하면서 당번을 정해 점심을 준비하고 함께 먹습니다. 주변에 사무실이 많아 직장인들을 위한 싸고 맛있는 커피집들이 있는데 선교사님들과 함께 마시러 가기도 합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과 한국 본부 사역자들이 모여 저희 선교단체 수련회를 하는데 이번엔 참석을 했습니다. 화중부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3박 4일을 세계 각국에서 온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어 달 전에 선교지를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권역장(Regional Director)과 선교지 리더들(Field Leaders)에게 들었고 여러 이유 때문에 직접 방문은 어렵겠다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런데 권역장을 통해 국제본부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선교지 몇 나라를 방문하면 좋겠다는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선교지를 거의 결정하려던 중에 이 권역가 있어서 중앙 아시아의 세 나라(Kz, H-S, Tj)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월 14일-9월 4일 일정으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기도제목

- 1. 선교지 방문 준비를 잘 하고 빠빠한 일정(8/14-9/4동안 3나라, 9지역)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 2. 방문하는 곳의 팀, 팀원들, 리더들과 성령안에서 교제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며 그들의 사역과 가정을 보호해 주시도록